

## □ 개요

- 기관명 : 우즈벡 김병화 농장 내 고려인 유치원

### <수혜기관 현황>

- 설립목적 : 우즈벡 김병화 농장은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이 정착한 곳으로, 농장 내 유치원은 150여명의 고려인 아이들 교육을 담당
- 주 소 : 우즈벡 타슈켄트주 우르타치르칙지구 김병화농장 내 유치원
- 인원현황 : 유치원생 150여명

- 일 시 : 2019. 4. ~ 2019. 12. (시범사업 완공보고회 : '19.12.20(금))
- 내 용 : 우즈벡 김병화 농장 내 유치원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 바닥 난방(150평) + 벽체 단열(1,2층) + 지붕 태양광 10KW + 태양광 LED조명
- 참석자 : (한국) KEA 이사장 등 공단 임직원 8명, 국내기업 3명  
(우즈벡) 유아교육부 장관, 공무원 및 고려인 유치원생 등 150여명
- 작성자 : 글로벌사업실 이지연 대리

## □ 내용

- 우리나라에서 비행시간으로 약 7시간 거리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는 강제이주를 당해온 고려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김병화 마을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중 우즈벡에 가장 많이 정착한 고려인들은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하에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고려인들만의 집단 농장을 여러 곳에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김병화라는 고려인이 이끈 부유했던 농장에 주목했습니다. 예전엔 큰 성공을 거두었던 농장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들이 낙후되고 에너지와 같은 기본적인 당연한 생활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 고려인 유치원에서는 150여명의 원생들이 냉난방, 단열이 전혀 되지 않는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를 고스란히 겪으며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밥을 먹고, 얇은 유리 창문 안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유치원 외관

기존 유치원 내부

우즈벡은 유아교육시스템 현대화라는 국가 목표를 가지고 한국의 유치원을 벤치마킹하며 건물 현대화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했지만, 에너지 부문은 전혀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공단의 강점을 살려 우즈벡 현지에 적합한 **한국형 에너지효율 모델을 접목한 유치원 건물**을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에 적합한 에너지효율 기준을 적용해야 했고, 우즈벡으로 운송 중이던 국내 자재(단열재, 태양광 모듈 등)가 몽골의 홍수로 현지에 늦게 도착하기도 하였으며, 건물 골격과 같은 기초 공사를 담당하는 우즈벡 측 시공사의 태만한 태도로 우즈벡 유아교육부와의 공사 협의가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즈벡측) 건물 바닥 기초 공사



(KEA측) 건물 바닥 난방시스템 공사



(우즈벡측) 건물 벽체 기초 공사



(KEA측) 건물 벽체 단열 공사



(KEA측) 태양광 LED조명 설치 1



(KEA측) 태양광 LED조명 설치 2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가며, 유치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과 인근 마을의 어두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태양광 LED 조명 설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추가 예산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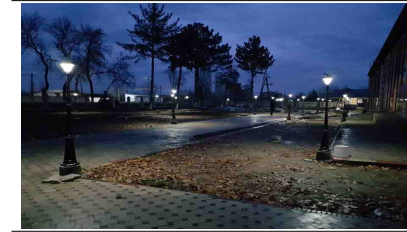
태양광을 활용한 LED 조명을 설치한 덕분에 유치원 내·외부는 물론 주변골목까지 밝게 변화되었고, 조명 덕분에 어두운 밤에도 마을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마을 주민들이 기뻐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유치원 에너지효율 개선 후 전경 1



유치원 에너지효율 개선 후 전경 2



태양광 LED조명 설치 후 1



태양광 LED조명 설치 후 2



유치원 지붕태양광 설치 모습



유치원 기증물품 (150EA)  
(에코백,러시아어·산수공부,연필 등)

약 7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아이들을 위한 따뜻하고 쾌적한 유치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유아교육부와 완공회의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마무리하며, 에너지절약 및 교육환경 개선 활동이 김병화 유치원 뿐만 아니라 타슈켄트의 다른 유치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즈벡 측에서 담당하는 공사가 일부 마무리 되지 않아 완공식과 유치원 개원이 내년 3월로 순연되었지만,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하루 빨리 고려인 어린아이들이 따뜻한 건물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며 뛰어노는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에필로그 : 우즈벡 유치원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글로벌사업실 중앙아권역(우즈벡) 담당 : 052-920-0603  
우즈벡 유아교육부 : <http://www.mdo.uz/ru>
- 참고사항 : 우즈벡 김병화 농장은 강제이주의 아픔을 가진 고려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개도국에는 지금도 에너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도 눈을 돌려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